

佛 상원 외교국방위원장, 서욱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등록 2022.02.14 22:20:08 | 수정 2022.02.15 06:02:41

기사내용 요약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 위원장, 서욱 면담
"결의안,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기대"
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회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정보, 韓에 공유



[서울=뉴스시스] 서욱 국방부장관과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이 14일(월) 프랑스 상원 내 마련된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2.14. (사진=국방부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이 14일 서울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사의를 표했다.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며 "이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캉봉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해당 결의안을 프랑스 상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3일 프랑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캉봉 위원장의 장인은 6.25전쟁 때 프랑스군 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국방부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이 14일(월)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2.14.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서 장관은 이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2016년 6월 한민구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양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를리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022년 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